

지역 재래시장 상품권 5월까지 128억 팔았다

3년새 가파른 상승세...전국 비중 24.4% 전년비 7.4%↑...광주·전남 54곳서 사용

광주·전남지역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찾는 손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 2009년 7월 판매를 시작, 그해 광주·전남지역의 판매액이 6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29억원, 올해는 5월까지 128억4000만원

어치가 판매됐다. 10일 중소기업청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기 시작한 후 광주·전남지역이 전국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5.6%였으나 지난해 17%, 올해 5월 기준 24.4%로 늘어나는 등 판매 비중이 경중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재래시장 가맹점 수도 덩달아 늘었다. 2009년 시행 초기에는 광주·전남권 46개 시장 4598개 상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 6월에는 54개 시장 7549개 상점으로 늘었다. 온누리 상품권 매출이 이처럼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단체 구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목포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본부와 전남체신청 등 지역 공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처 등 지역 기업들의 단체

구매가 앞다퉈 늘었다. 올해도 지자체의 손길은 이어져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상품권으로 하도록 권장했으며 기관 단체 및 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포상금 등을 지급할 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했다. 전남도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직원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장을 보도록 독려한 결과, 명절 때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온누리 상품권 매출이 높은 것은 이 지역에 농·수산물 특산물이 많아 지역민은 물론, 타지역에서도 많은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1만원과 5000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통 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청과 시장 경영진흥원에서 발행되고 있다. 광주는 양동시장 등 15곳, 전남은 39곳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며 광주는 행과 새마을 금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에너지·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도주 상승세 지속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는 거침없는 상승세로 KOSPI 2180선에 올라섰다.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로 이미 학습효과를 겪은 국제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이어갔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인 8일 연속 순매수에 나설 정도로 견고한 투자심리를 보여줬다.

다만 2/4분기 어닝시즌이 도래하면서 기업들 간의 주가 흐름이 빠르게 차별화되는 양상인데 이는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8일 연속 2.2조원(KB금융 자사주 매각분 제외)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6월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3.3조원에 달했음을 감안할 때 커다란 시가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매매패턴의 변화는 첫째, 그리스 재정위기가 수습국면에 접어들면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꾸준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지난 6월 말부터 다시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원화 강세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DBS은행이 원/달러 환율을 올해 98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처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세와 함께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구도 속에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계 자금의 투자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적별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살펴보면 92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매도 속에서도 중국계 자금은 2500억원에 달하는 매수세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6월까지 1조1769억원에 달하는 순매수로 매수 비중이 18%에 달할 정도로 신규 매수 세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번 주는 물량 소화과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최근의 상승 기초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세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기회복 우려의 중심에서 있던 미국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4분기에는 일본 지진 피해에 따른 성장 감소분을 빠르게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미국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뒷받침해줄 전망이다. 다만 기업 실적 전망의 업종별 편차가 여전히 크고,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치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따른 업종 및 종목 차별화에는 꾸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2010년 기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 중 2011년 및 2011년 2/4분기에도 기업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돋보이는 업종은 에너지, 자동차·부품, 조선, 기계 등이라는 점에서 기존 주도주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4분기 어닝시즌이 지나가면서 업종별 순환매 흐름에서 주도주로의 압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전남 농축산물 판매 3조원 달성 '청신호'

상반기 1조4878억원...전년보다 1313억원 늘어

전남지역 농축산물들이 올 상반기에 판매한 농축산물 규모가 1조48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판매목표인 3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전남지역 농축산물 판매한 농축산물은 모두 1조4878억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인 1313억원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전체 판매액의 29%를 차지하는 양곡류가 42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억원(1%) 증가했고, 과일류 3271억원(13%), 축산류 2369억원(13%), 채소류 2290억원(1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 전남본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공동선별을 통한 출하가 95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18개 광역연합사업단에서 452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역동적인 판매 활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또 양파·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직거래장터 운영, 지난해 구제역 파동 속에서도 청정축산 이미지를 지킨 전남의 축산물 광역브랜드 판매 확대 등도 힘을 보탤다. 농협 전남본부는 올해 농축산물 판매 목표 3조원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선출하회(2000억원)와 연합사업단(800억원) 판매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65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단계별 품질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남 쌀 판매촉진을 위해 수도권 소비자 초청 산지투어와 서울 쌀 박람회 참가, 전남쌀 소꿉물(www.ricelove.co.kr)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4일 문을 여는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호남권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 전남 농산물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위더파크 35%·스타벅스 20% 할인혜택 광은카드 '쿨 썸머 페스티벌'

광주은행은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은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Cool Summer Festival' 행사를 실시한다. 광주은행은 나주 흥흥골드스타리조트 '위더파크' 이용시 카드사 최고의 가격할인율인 35%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수 디오션리조트 '파라오션위더파크'와 화순금호리조트 '아쿠아나'에서도 30% 할인된 가격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광명 엑스포공원 내 물놀이장은 10% 할인혜택을 받는다. 또한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스타벅스 전국매장에서 20% 할인행사를 펼치며 전국 하이마트와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가전 제품 구입시 최고 6개월 무이자할부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 GS네스태이션 오토오아시스에서 엔진오일 교환과 타이어 교환시 각각 30%와 10%의 할인된 요금으로 정비를 받을 수 있다. 주병정 광주은행 카드사업부 부장은 "광은카드를 이용해 나온 수익은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그 혜택이 환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백화점·마트 '더위사냥' 시작 캠핑촌 짓고 음료 제공 등 콜 서비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하는 정부 시책이 11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업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10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는 18일부터 1층 야외광장에 '여름 바캉스 캠핑촌'을 조성한다. 텐트와 바비큐 장비 등으로 바캉스 분위기를 연출해 시원한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한 것. 또 22일부터는 사흘간 스타벅스와 코카콜라에서 고객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며 주차장 이용 고객에게도 부채와 음료를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12일부터 시원한 차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쿨 서비스'등을 실시한다. 또 마네킹의 코디도 여름 분위기를 연출, 청량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산대 위쪽 환풍구를 개방해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특히 피팅룸마다 선풍기를 설치해 '더위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는 계산대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 또 정부 시책에 따라 온도를 26도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고지문을 실내에 붙이고 고객들의 이해를 최대한 구할 계획이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세~7세)	토·일·공휴일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충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